

민족단합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어 (3)

애국지사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사랑

씨앗이 싹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자면 해빛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애국의 마음을 인생의 씨앗처럼 가슴에 간직했으나 참되게 꽃피우지 못하고 헤매이던 우천 조완구선생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받이 있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인생을 참답게 빛내일수 있었다.

1881년에 봉건판교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는 21살 때 법학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고종황제의 《승훈부내부주사》의 판직에 올랐다. 그는 1905년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행위를 반대하여 반일독립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가슴에 품은 애국의 씨앗을 한송이 꽃으로 피우려 하는 열서를 안해에게 남긴 선생은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각종 계몽강연에 연사로 나서서 한편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가며 격문을 뿌리는데 앞장섰다. 그는 집까지 팔아 자금을 융통하여 운동자금이나 친우들의 피신자금으로 선사하기도 했다.

이국에서 《상해림시정부》 수립에도 관여하면서 31년간에 걸친 망명살이를 끝내고 남조선으로 돌아올 때 선생은 《림시정부》의 요인이었으나

개인자격의 명목으로나 들어올수 있다는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자주독립을 바라던 선생의 애국의 씨앗은 싹들수 없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이 판을 치고 애국배족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단선단정》을 꿈꾸며 정치론쟁에만 열을 올리고있었다.

미국에 접차 환멸을 느낀 선생은 김구,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인사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어 《단선》에 참가하지 않는다는것, 통일독립전에 여성을 바친다는 애국의 뜻을 표하였다.

참다운 애국의 길을 찾아 방황하던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인사들에게 통일독립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해빛이 비쳐들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할때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고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층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도록 해주신것이다.

선생은 1948년 4월 김구, 김규식, 홍명희, 조소앙 등 여러

인사들과 함께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앞장섰으며 그후 《한국독립당》 대표들과 민족자주련맹 대표들, 우익단체 대표들과 함께 북행길에 올랐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그를 김구, 홍명희선생과 함께 주석단성원으로 선출하시였다.

한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인 그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해준것은 확고한 민족자주정신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로선이 담겨진 위대한 주석님의 보고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남조선에서 실시하려는 《단독선거》는 우리 조국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며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시면서 조국이 분렬의 위기에 처한 이 엄중한 때에 모두가 단결하여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빛받아래 조

완구선생의 가슴에서 애국의 씨앗은 마침내 싹트게 되었다. 선생은 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통일독립을 위한 애국투쟁에 앞장섰으며 그후 남조선의 여러 정객들과 함께 공화국으로 의거하였다.

준엄한 전쟁시기였지만 주석님께서 조완구선생이 미군의 폭격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고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관심 하시였다.

그이의 사랑은 선생에게 있어서 애국의 삶을 꽃피워나가도록 하는 자양분이였다. 그는 로년기의 몸이었지만 주석님의 위인상을 담은 글을 집필하는 한편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의 뜻을 받들어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역사문헌들을 번역출판하기 위한 준비사업에도 전심전력하였다.

선생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던 애국의 씨앗은 태양의 빛과 열을 받아 싹트고 줄기를 왕성하게 뻗어갔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조완

구선생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에게 《애국지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



주시고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였다.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주석님의 대해같은 덕망에 의해 조완구선생의 생은 통일애국의 한생으로 빛나게 되었다. 본사기자 류 현 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원격강의실에 들리시어

주제 102(2013)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현대적으로 꾸러진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원격강의실에도 들리시였다.

원격강의실에서는 일을 끝낸 공장노동자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받고 잘 모르는 문제들은 음성과 화상을 통하여 물어도 보고 시험도 치면서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게 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형

TV화면에 현시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체계 《리상》 홈페이지를 보시며 매 학생들이 강의를 받은 정형과 강의 리해정형, 시험응시정형을 비롯

교원들도 생각 못한 문제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성과학자주력지구를 돌아보시면서 위성초급중학교도 찾으시였다.

북도에 놓여있는 옷걸이가 달린 의자에도 다가가시어 손

룩한 학생들의 학습정형을 순위를 갈라 소개한다는데 교육관리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격강의실에서 원격교육을 받는것을 전민학습체계라고 하여야 할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북도바닥에 연마화강석을 깔았는데 아이들이 겨울에 눈을 밟고 들어오다가 넘어질수 있으니 학교북도바닥에는 그에 맞는 바닥재를 개발하여 깔아주어야 한다고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본사기자

령장의 담력과 지략 (7) 행성을 뒤흔든 조선의 선언

미국은 조선정전후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배비를 정책화하고 1958년부터 1990년초까지 무려 1 720여개나 되는 각종 전술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목적으로부터 1985년 12월 핵무기전과방지요약에 가입하였다. 그후 공화국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담보협정을 체결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핵사찰과정에 공화국의 핵시설이 핵무기개발과는 인연이 없으며 평화적목적에만 이용되고있다는것이 명백히 확증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들을 사찰하여 공화국의 일반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고 1993년 1월 이미 중지했던 《팀 스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포하였으며 20여만의 침략무력과 방대한 핵타

격수단들을 동원하고 지어 핵무기사용시의 지휘체계까지 발동하면서 군사적위협소동을 벌리였다.

이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또다시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는 핵폭탄같은 선언이 울려 퍼졌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1993년 3월 8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의 《팀 스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이 실동단계에 들어간때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의 일부 타격수단들이 전개되고 기동훈련이 진행되었다. 150만여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를,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복대를 탄원해나섰다.

이러한 속에 1993년 3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과방지요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이 행성에 메아리쳤다.

준전시상태의 선포와 핵무

기전과방지요약에서의 탈퇴조치는 언제나 맞받아가는 전술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변함없는 원칙적립장,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의지의 발현이었으며 적대세력들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조치였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한 방송은 조선이 핵무기전과방지요약에서 탈퇴한다는 성명이 발표된 《이날은 지구가 깨어지기 시작한 날》이라고 평하였으며 세계는 《지구상의 핵폭탄을 다 터쳐도 북조선의 이번 성명보다 위력하지 못하다》, 《조선의 결정은 미행정부를 쇼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였다.

형세는 역전되었으며 승리는 확정적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지략, 하늘이 무너진대도 끄떡하지 않는 담력과 배짱 앞에 적대세력들의 어떤 술수도 통하지 않았다.

미국이 벌린 《팀 스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기본단계 실동훈련을 하고있었으며 그것은 북

침의 위험한 불장난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3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소식이 전해졌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전쟁연습의 포성이 계속 울리고있는 때에 준전시상태를 주동적으로 해제한것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강자만이 여유작작할수 있다. 준전시상태의 조기해제로 호전세력들은 또 한번 패자의 가련한 몰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되었다.

당시 미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담당 차관보는 《북조선이 이처럼 강력한 태도로 반격해나오리라는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북조선은 단결력이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 특수한 나라이기때문에 미국에 어떠한 타격을 가해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명을 질렀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이 북조선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주 일 봉

교육은 인재를 키우는 일이다. 교육이자 인재이고 인재의 역할에 나라와 민족의 존재와 발전이 중요하게 좌우된다. 예로부터 한해일을 궁냥하러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고 100년을 내다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인재는 나라와 민족의 첫째가는 재보이다. 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한 국력을 가지고 흥할수 있지만 인재가 없으면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으로 빛을 낼수 없으며 국가발전과 사회진보를 이룩할수 없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교육중시, 인재중시로선을 제시하고 후대교육과 인재강국건설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세해전 정월초하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하신 그길로 평양육아원을 찾으시였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원아들이 밥먹는것부터 보자고 하시며 식당에도 가보시고 보육실과 잠방, 물놀이장도 돌아보신 그이께서 지능놀이실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곳에서는 원아들이 수자맞추기와 조각그림 맞추기를 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의 모양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원아들이 모두 맞추기를 잘한다고, 모두 푹뚫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어린이지능교육도서를 많이 만들어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는 물론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에 보내주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을 잘 만들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세 계적으로 이름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에 대하여 실례도

시였다. 육아원을 다 돌아보시고 이 애육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지능놀이실에 들리시어 지

능교육용그림책들이 있는가 알아보시였다.

애육원의 한 일군이 어린이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많다고 하며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뽑아 그이께 올리였다. 책을 받아드시고 주의깊게 보신 그이께서는 다른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고르시어 한장한장 번져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말을 배워요》, 《생각해보자요》라는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개발시키는데 좋은 도서들이라고 하시며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에 보내주도록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양은 불행과 설움의 대명사이다. 그들이 잠시나마 배불리 먹고 쓰듯이 지낼수 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 원아들은 국가의 관심과 시책에 의하여 부모없는 설움이나 자그마한 불편을 모르고 자라고있다.

원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포괄적이며 따뜻한 사랑이 그이의 다심한 정과 각근한 사랑이며 웅심깊은 리상과 포부이다.

원아들의 교육을 위한 지능교재의 갈피갈피에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국가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창조적인재로 더 잘 키우시려는 친어머니의 다심한 정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원아들은 후날 자기들의 자서전에 우리의 아버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우리의 집은 조선로동당의 품이라고 적을것이다.

서 충 혁

지능교재의 갈피에도